‘형제의 난’ 10년 만에 ‘조카의 난’ … 금호家에 무슨 일이

꿩 대신 닭?… 삼촌에 대든 조카 “명분·실익 다 잃었다”

〈아시아나〉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박철완 상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삼촌 박찬구 회장에 반기
승진 밀리면서 독자노선
배당금 확대 등 요구

과거 ‘형제 공동 경영’으로 주목받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권을 두고, 약 10여 년 만에 다시 ‘형제의 난’에 이어 ‘조카의 난’까지 일어나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제의 난’서 승리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금호그룹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의 아들 간 ‘형제의 난’에 이어 또 다시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다. 과거 박 회장의 삼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사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이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연이어 인수하자 이에 박찬구 회장이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박인천 창업주의 장남 박성용 2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부터 삼남인 박삼구 회장까지는 ‘지분 공동 보유’라는 규칙 등을 통해 공동 경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형제의 난’에 따라 금호그룹 내 ‘형제 공동 경영’ 전통은 끊어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금호석화 지분을 대폭 늘려 계열 분리를 추진했다. 이후 그는 2010년 3월 취임해 약 10년 동안 금호석유화학을 이끌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금호석화에 대해 독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형제의 난 결과, 업계에서는 박찬구 회장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3월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반면, 박찬구 회장은 탄탄한 재무 상태로 지난해 코로나에도 외려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 742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박철완 상무 “독자노선”…끝 없는 ‘경영권 분쟁’

금호그룹 내 형제의 난이 마무리되자 이번엔 ‘조카의 난’이 일고 있다. 형제의 난 당시 박찬구 회장의 편에 섰던 조카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독자 노선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박 상무는 박인천 창업주의 차남인 박정구 전 회장의 장남이다.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중 제1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와 관련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결별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에 관심이 있던 박 상무가 아시아나가 한진그룹으로 인수되자 금호석화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나는 현재 한진그룹 소유인 대한항공과의 인수 합병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7월 그룹 인사에서도 박찬구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는 승진했지만, 박 상무는 누락되며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리자 본격적인 독자행동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번 조카의 난은 먼저 내달 정기주주총회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상무는 사실상 지분 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 주주제안을 통해 약 49%에 달하는 소액주주 등의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같은 주주제안의 정기주총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박 상무는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6.69%, 아들 박준경 전무와 딸 박주형 상무가 각각 7.17%, 0.98%를 보유해 약 15%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경쟁에서 밀리는 박 상무가 소액주주 등의 표를 얼마나 획득하느냐가 이번 정기주총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이사진 10명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5명도 교체될 예정이다. 이사 선임의 건은 주총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 368조 제1항)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박 상무가 박찬구 회장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조카의 난이 일었지만, 사실상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도 나온다. 박찬구 회장은 10여 년간 금호석화를 이끌며 형 박삼구 전 회장과 달리 경영 안정성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박찬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주총에서도 소액주주 등의 표심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외국계 은행도 ‘배당 20%’ 권고… 씨티·SC “고심”

SC제일銀, 평균 50% 수준
배당금 지급방안 내부 조율
IBK기업銀 등 국책은행 제외

〈은행 배당 성향〉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외국계은행	2017년	2018년	2019년
SC제일은행	45.68%	50.59%	208.31%
씨티은행	38.9%	39.8%	22.2%
국책은행	-	2018년	2019년
IBK기업은행	정부	25.73%	28.02%
	일반주주	30.05%	32.48%
KDB산업은행	정부	5.77%	25.12%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에 이어 외국계 은행에도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내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권고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들 은행이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외국계 은행, 오는 3월 결정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당 성향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적게 돌려준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배당성향은 2017년 45.68%, 2018년 50.59%, 2019년 208.31%로 확대됐다. 2019년은 SC그룹이 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자 은행이 SC그룹에 5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해 배당성향이 208.31%로 늘었다. 2019년을 제외하면 평균 50% 수준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우선 배당성향 20% 이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순이익의 20%까지만 배당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내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추후 3월에 열릴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씨티은행도 20% 이내로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은 2017년 38.9%, 2018년 39.8%, 2019년 22.2%로 평균 33.6% 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와 주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히 안내할 수 없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려 안내해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차등배당방식 도입가능성↑

IBK기업은행은 정부와 일반주주와의 차등배당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은행의 배당성향을 20%로 권고하면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한해 권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장 타 은행보다 배당성향을 높게 책정할 경우 타 금융지주 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주주가치를 높이고 투자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의 배당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차등배당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2018년 25.73%(30.05%), 2019년 28.02(32.48%)이다. 주당 배당금액은 2018년 최대주주(정부) 559원, 일반주주 690원, 2019년 최대주주(정부)472원, 일반주주 670원이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반 주주의 배당금은 정부와 차등배당이 예상되고, 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 배당성향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20원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은경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배당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준 만큼 지난 2년간 시행했던 차등배당정책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안 규제 과도”

“산업 진흥 아닌 규제로 쏠려” 반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 측은 게임법 개정안 내 표현 개념이 불명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 측은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며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했고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ICT 해외진출 지원 기업 80개社 공모

과기정통부, 컨설팅 제공

정부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역량 있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ICT 기반의 혁신기술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오는 16일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업 신청은 3월부터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도에 따라 ▲목표지역 특화형(50개) ▲해외진출 성장형(30개)으로 나눠 총 80개 기업을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사업화 육성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 지원을 통해 전문 컨설팅 1915건, 해외 법인설립 4건, 해외 사업계약 및 제휴 140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96건, 국내외 투자유치 2470억원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홍보 등 경영 컨설팅을 기본 제공한다. 신청접수는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목표지역 특화형은 3월 3일~31일, 해외진출 성장형은 4월 1일~22일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